수능 전날 감독관 500명 교체 소동

광주시교육청, 시험장소 사전 노출돼 … 입시관리 '혼선'

광주시교육청이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80여 곳이 넘는 학교의 감독관을 전격 교체하는 등 입시관리에 혼선을 빚었다.

일선 학교에서 수험관리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17일 예비소집일에 공개해야할 시험장소가 일부 학생들에 사전 노출돼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수험생에 수험장소가 사전 노출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이날 80여개 중학교 소속 파견 시험 감독관을 교체했다.

이에 따라 감독 교사 1100여명 가운데 500여명이 기존에 배치된 학교에서 타 학교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장소를 사전에 알게 돼 행여나 있을지 모를 부정행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감독교사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일선 학교에 교부한 수험표를 17일 오전 10시 예비소집서 학생들에게 나눠줘야 함에도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4교시 선택과목을 미리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함께 기재된 시험장소가 노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대로라면 수험생의 시험장소를 재배치해야 하지만 수험번호 등이 확정된 현 여건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완책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치는 장휘국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장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브리핑룸에 들러 "지난 12일 수험표가 일선 학교에 내려갔는데 일부 고교에서 수험생에게 시험장을 알려줬다는 말이 있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4년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가 발생해 오명을 뒤집어썼던 시 교육청이 입시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갑작스런 감독관 교체로 시 교육청 입시관리 담당자 등은 이날 오전에 교체 대상 학교 등에 긴급 공문과 전화로 변동사항을 설명하는 등 진땀을 흘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수능 … 아침밥 먹고 수험표·신분증 꼭 챙기자

휴대전화는 집에

18일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날이다. 고사장에 가기 전에 신분증, 간단한 오답정리 노트, 필기구를 챙기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휴대전화 등 휴대금지 품목을 집에 두는 등 '수험생 주의사항'도 상기해야 한다. 선택과목 시험이 치러지는 4교시에는 시험시간별로 해당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시험 당일 입맛이 없더라도 아침식사는 반드시 먹도록 하고 특히 밥이나 빵 등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해 뇌에 포도당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고사장에는 조금 일찍 도착해 의자와 책상 상태 등을 확인한 뒤 마음을 가다듬고, 시험 직전에는 스스로에게 잘할 수 있다는 최면을 거는 것이 유용하다.

시험 시작 전 커피와 녹차, 홍차 등 카페인 함량이 높은 차를 마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어 가급적 피해야 한다.

4교시 선택과목 시험은 신중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 선택과목 시험요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려 42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처리됐다.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시험이 치러지는 4교시에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해당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침엔 쌀쌀해요

광주·전남 맑고 포근한 날씨 서해상 안개 끼어 수송 주의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18일 광주·전남지역은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수험생 수송에 주의해야 한다. 광주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2도까지 떨어져 수험생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하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수능일인 18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맑겠다"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6도로 쌀쌀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3도~16도로 포근하겠다"고 17일 예보했다.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 해상에서 바다의 물결은 0.5~1.0m로 낮지만, 서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도서 지역과 내륙을 오가는 선박 운항에 유의해야 하겠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16일 광주시 광산구 고룡정보산업학교 학생들이 대학수능 3일을 앞두고 막바지 공부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과거 참회…삶 바꾸는 도전"

수능 응시 광주 고룡정보교 학생 4명

"이번 수능은 삶을 바꾸려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사흘 앞둔 15일 광주시 광산구 고룡정보산업학교에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수현(18·가명)군 등 4명의 학생들은 일제히 입을 모았다.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한 때 '소년원'이라 불렸던 청소년 교화시설이다.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곳에 들어온 김군이 수능 도전을 결심한 것은 어머니 때문이다. 면회 온 어머니가 굵은 눈물을 훔치고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책을 잡았다.

김군은 이곳에서 1년 간 검정고시 합격은 물론 한글A급, 파워포인트C급, 한자6급, 온수온돌기능사 자격증까지 따냈다.

그는 이미 순천의 한 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수시 원서를 넣어 합격했지만, 물리치료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다.

박동화(18·가명)군은 경기도 오산의 한 대학 자동차정비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참고서를 펴고 마지막 점검에 한창이었다.

고룡정보산업학교에서는 올해 7명의 학생이 수능시험을 치른다. 학교를 나선 3명은 밖에서, 4명은 학교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교사들도 퇴근을 미루고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4명을 뒷바라지하고 있다. 살레시오 고교 교사들도 매주 3회씩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군은 "이곳 아니면 어디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겠느냐"며 "과거를 잊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고룡정보산업학교는 전국 10개 청소년 교화시설 중 직업교육 특화학교로, 현재 106명의 학생들에게 자동차 정비와 중장비, 용접, 건축환경설비 등 4개 부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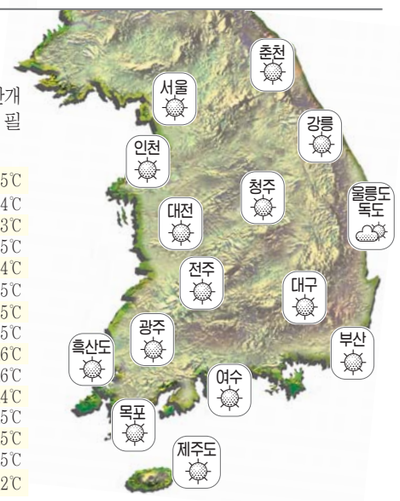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10분 해짐 17시 25분 달뜸 15시 03분 달짐 03시 38분

수험생 수송주의!

새벽부터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광 주	맑음	2/15℃
목 포	맑음	3/14℃
여 수	맑음	6/13℃
나 주	맑음	-2/15℃
완 도	맑음	2/14℃
구 례	맑음	-2/15℃
해 남	맑음	-2/15℃
장 흥	맑음	-2/15℃
고 흥	맑음	-1/16℃
순 천	맑음	1/16℃
영 광	맑음	0/14℃
진 도	맑음	0/15℃
전 주	맑음	0/15℃
남 원	맑음	-3/15℃
흑산도	맑음	8/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관심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밀물	썰물
목포	11:58 23:58	04:52 17:29
여수	06:49 19:01	00:32 12:5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날 씨						
최저/최고	3/14	7/16	6/17	8/15	3/14	4/15

올 광주 시내버스 운송적자 354억원

지난해보다 23% 늘어

올해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송적자가 지난해보다 22.9% 증가한 354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17일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201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안)'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지침 개정(안)', '시내버스 시범노선 조정 실행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안)'에 따르면 올해 저상버스 62대, 대형버스 521대, 중형버스 323대, 예비 42대 등 총 948대의 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354억원의 운송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건비 915억원, 연료비 318억원, 기타비용 269억원 등 운송원가가 1502억원에 달한 반면, 운송수입은 1148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운송적자 288억원에 비해 66억원(22.9%) 늘어난 수치다.

인건비는 지난해 872억원에서 4.9%, 연료비도 306억원에서 3.9% 각각 증가한 반면 운송수입은 오히려 지난해 1164억원에서 1.4% 감소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서는 풍암 61번, 문흥 39번, 금호 46번, 송암 74번, 지원 152번, 수완 10번 등 7개 시범노선을 조정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DJ 명예 훼손 지만원씨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17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모욕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보수논객 지만원(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작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